

“보안대, 시민군 조직도 짜놓고 ‘5·18 보고서’ 날조”



5·18 계엄군의 고백

<4> 전교사 사진병

5·18 민주화운동 직후 상무대에 주둔하던 505보안대가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날조한 5·18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당시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 사병의 증언이 처음으로 나왔다.

(관련기사 3면)

이 사병에 따르면 505보안대는 1980년 7월 한달간 민간인 수습명까지 동원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 형태 보고서 20세트(1세트당 20권 구성)를 만들었다. 해당 보고서는 헌병대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제작됐으며 2급 기밀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당시 신군부 최상부에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5·18 당시 전교사 사진병으로 복무했던 김보(61·당시 상병)씨는 17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5·18 항쟁이 끝난 후 505보

안대가, 1980년 7월 사병·민간인 80여명 동원 헌병대 감시 속에 한달간 20세트 분량의 책 제작 무기피탈조·홍보조·지원조 등 각본 미리 만들어 끌려온 시위 참가자들 역할 무작위로 짜맞춰 넣었다

안대원들이 무작위로 붙잡아온 시위대를 무기피탈조, 홍보조, 지원조 등으로 나눠 각각 협의를 뒤집어 씌웠다”고 밝혔다.

김씨는 “보안대가 수기로 작성한 조서를 보니 미리 시위 참가자들의 역할에 관한 조직도를 만들어 놓고 짜맞춰 넣은 것이 분명해 보였다”며 “이 조서를 책자로 만들기 위해 전교사 내 인쇄소에서 민간인까지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타이핑한 문서의 분량은 2cm 두께 책자 20권에 달할 만큼 양이 많았다”며 “책자는 2급 기밀로 분류됐으며 모든 작업은 헌병대의 감시 속에서 진행됐다”고

기억했다.

김씨에 따르면 군 인쇄소는 1980년 7월 초부터 505보안대의 주도로 책자 형태 5·18 보고서를 인쇄했다. 전교사 내에 있던 505보안대 분소 직원들은 기존 인쇄소 인력 외에 광주지역 타이핑 인력 30명을 일당직으로 추가 투입했으며 전교사 사병 중 일부도 차출했다. 이들은 주로 보안대원들이 건네준 피의자 조서를 타이핑하는 작업을 했다. 김씨는 8월초까지 한달간 타이핑 인력들이 교대로 24시간 작업을 해야 할 만큼 방대한 분량이었다고 설명했다. 타이핑 작업에는 자음과 모음을 따로 불러

야하는 일반 타자기와 달리 한글자씩 찍히는 최신식 ‘공판타자기’가 동원됐다.

이렇게 완성된 책자는 총 20세트로, 전교사에도 배포되지 않을 만큼 극히 일부 상부 조직에만 전달됐다. 사병이었던 김씨는 아쉽게도 보고서 제목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했다.

김씨는 사진병이었지만 주로 인쇄소에서 행정업무를 맡았다. 당시 육군은 군 교재를 만들기 위해 전국에 6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교사 인쇄소는 ‘제1지구 인쇄소’로 불렸다고 김씨는 기억했다. 인쇄소는 주로 보병·화학·포병·기갑학교의 교육교재를 제작했다.

김씨는 “내가 봤을 때 이미 보안대의 수사 과정부 5·18은 왜곡되고 있었다”며 “보병 어딘가에는 보고서가 아직도 존재할 것이다. 보고서를 찾으면 5·18 왜곡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희기자 kimhy@kwangju.co.kr

‘오월광주, 정의를 세우다’ ... 38주년 5·18 기념식

오전 10시 5·18 민주묘지

문제인 대통령은 불참

5·18 관련기사 2·3·6·7·16면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다.

이번 기념식에는 5000여명이 넘는 시민과 유족 등이 참석한다. 문제인 대통령은 불참한다. 또, 모든 국민이 입장 가능하도록 ‘국민 개방형’으로 치러졌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행사는 초청자와 사전 신청자만 입장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국가보훈처는 “18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운동동 국립5·18 민주묘지에서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을 진행한다”

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38주년 기념식은 ‘오월광주, 정의를 세우다’를 주제로, 5·18이 광주의 아픔에 머물지 않고 평화의 역사, 민주주의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한다는 의미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기념식 사회는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제작된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김갑배와 김재희가 맡는다. 이들은 기념식 중간에 공연되는 시네라마(Cin-

erama) 형식 공연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추모공연과 헌화분향,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의 순으로 50분간 경건하게 진행된다.

지난해처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은 물론 유가족을 위로하는 순서도 들어있어 지난해 기념식의 감동이 올해 행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기념식 참석인원은 5000여명으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5·18과 관련이 있는 외국인들도 참석한다. 5·18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언론인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찰스 베츠 헌틀리 목사의 부인 마사 헌틀리, 고(故) 아놀드 피터슨 목사의 부인 바바라 피터슨, ‘2018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스킨리 카 출신 난다나 마나통가 신부 등이 참석해 5·18의 의미를 기릴 예정이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여야 지도부 광주 총집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을 앞두고 광주에 총집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 지도부는 17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는 물론 각종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18일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후보를 비롯한 시·도당 당직자들과 함께 이날 오후 7시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5·18 민주항쟁 전야제에 참석했다. 추미애 대표는 당 지도부들과 함께 18일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광주에서 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주지역 전체 후보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과 함께 5·18 민주항쟁 민주평화대행진에 참석했다. 박주선 공동대표와 함께 전야제 행사에 참석했다.

호남에 지지기반을 둔 민주평화당도 지도부가 대거 광주로 향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민심 집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과 조배숙·장병완 공동선대위원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지방의원 후보들과 함께 민주평화대행진과 전야제에 각각 참석한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11시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호남선거대책위원회 결성식을 열었다. 결성식에는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호남지역 후보 54명과 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반면,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광주 일정을 잡지 않았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금남로 5·18 전야제 ... 오월 풍물굿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5·18민주항쟁’ 전야제 행사의 하나인 오월 풍물굿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전야제에 이어 18일에는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기획 전시, ‘금남로 시민공문화회’ 등의 기념행사가 이어진다.

광주일보

6·13 지방선거표발 점검-장성 ▶5면

KIA-SK 챔스필드서 화력대결 ▶20면

앙상블 디토 DITTO

광주일보 창사166주년

광주일보는 창사 66주년을 맞아 스타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오닐이 이끄는 앙상블 디토 공연을 오는 6월 18일에 개최합니다. 관객들을 찾아가는 ‘앙상블 디토 - Dynamic DITTO’는 디토가 공진과 절음을 모토로 2009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2018 디토 페스티벌’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올해 공연에는 리처드 용재 오닐을 비롯해 2015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1위 인은 2위를 수상한 대만의 바이올리니스트 유지연형, 2014 루빈스타인 콩쿠르 은메달 수상자 피아니스트 스티븐 린, 아시아 최초의 파벨로 카펠스 콩쿠르 1위 수상자 첼리스트 문태국,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정, 클라리넷의 김한이 참여해 브람스의 ‘피아노4중주 2번’ 등을 들려줍니다. 광주일보 독자들의 많은 성원바랍니다.

■ 비올라 : 콘트라스트
■ 소스타인클비치 : 피아노 삼중주 2번 e단조, 작품 67
■ 브람스 : 피아노 사중주 2번 A장조, 작품 26



(C)Sangwook Lee

2018. 6. 18 [월]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주최 광주일보 | 아시아문화 티켓 R세 88,000원 | S세 66,000원 | A세 33,000원 예매 티켓마루 1588-0766 | ticketmaru.co.kr 문의 062-220-0541